BANK OF KOREA

제 2020-13호

이 자료는 4월 6일(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4월 5일(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해외경제 포커스

2020. 4. 3

조사국 국제경제부

차 례

포커스 브리프 1

글로벌 이슈 2

- 중국 서비스산업의 성장 배경 및 주요 특징

주요 신규 경제지표 18

주간 발표 예정 해외경제지표 및 시장전망 23

부 록

최신 해외학술 정보 24

국제경제리뷰 목록 33

■ 「글로벌 캘린더」는 전월 마지막주에 수록되고 있습니다.

■ 「주요국의 경제지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수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는 매주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커스 브리프 >

그동안 중국의 성장전략이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오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비스산업 전반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온라인과 연계된 업종은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산업이 성장한 배경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의 두 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 고속성장하면서 3차산업의 GDP 비중이 2012년 이후로 제조업을 추월하였으며 성장 기여율도 60%에 근접하였다. 또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도시화를 촉진하고 제조업과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며 고용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서비스산업 성장배경으로는 ① 소득증가와 인구구조 변화, ② 대외개방 확대, ③ 서비스업 성장촉진 정책 등이 있다. 가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가 해외여행, 문화 및 오락에 대한 수요를 주도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며 고령층의 의료 관련 서비스 수요도 확대되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통신, 금융 등 핵심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비스 시장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① 디지털화, ② 업종별 생산성 격차 확대, ③ 서비스수지 적자와 같은 특징을 보였다.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 사용인구가 늘어나며 온라인 상거래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업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생산성이 높은 업종(정보통신업, 금융업 등)과 생산성이 낮은 업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간 생산성 차이가 확대되고 있으며, 여행, 운송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도 심화되는 추세이다.

중국은 서비스산업 비중이 여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소득 여건 개선, 인구분포, 정부정책 등을 면밀히 고려해 볼 때 중국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4차산업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스마트의료 및 교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디지털 경제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이슈

중국 서비스산업의 성장 배경 및 주요 특징

중국경제팀 송효진 과 장
박정하 조사역

◆ **(검토 배경)**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온라인 서비스 관련 매출이 큰 폭 증가하는 등 디지털경제와 연관된 서비스업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그동안에도 중국의 성장전략이 투자, 수출을 통한 양적 성장방식에서 내수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오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 향후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산업의 성장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

◆ **(중국 서비스업 현황)**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성장과 고용의 두 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성장)** 도시화와 함께 서비스업의 GDP내 비중과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고용)**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지역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

◆ **(서비스산업의 성장 배경 및 주요 특징)**

1. 성장 배경

① **소득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 :** 높은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요가 확대

* 최근 5년간('12~'17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6.6%로 주요 선진국이나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

② **대외개방 확대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③ **서비스업 성장촉진 정책 :** 서비스업 성장에 중점을 둔 질적성장 구조로의 정책전환 추진

2. 중국 서비스산업의 주요 특징

① **디지털화 가속 :** 전자상거래 사용수단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관련 서비스업이 고속 성장하는 가운데 코로나 19사태로 서비스업의 디지털화가 가속

② **업종별 생산성 격차 확대 :** 노동생산성이 낮은 업종(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과 높은 업종(금융업,정보통신업 등) 간 생산성 차이가 주요 신흥국보다 크게 확대

③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 여행, 운송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

* 글로벌 서비스 수입 비중이 EU,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18년 기준)

◆ **(평가 및 전망)** 서비스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데다 가계소득 여건 개선, 인구구조 변화, 정부지원정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4차산업과 연계한 전자상거래, 스마트의료 및 교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디지털 경제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 4
Ⅱ. 중국 서비스산업 현황 ····· 5
Ⅲ. 서비스산업의 성장 배경 및 주요 특징 ····· 7
Ⅳ. 평가 및 전망 ····· 15

Ⅰ 검토 배경

□ 중국의 성장정책이 투자, 수출을 통한 양적 성장방식에서 내수중심의 질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인프라, 제조업 및 부동산 부문의 과잉투자 문제가 발생하자 2011년부터 가계 가처분소득을 높여 국내 소비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성장정책*을 전환

* 「2011년 12·5 계획」은 내수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여 녹색경제, 고부가가치 경제 등 5개 정책기조로 구성

□ 서비스산업은 다양한 내수시장과 고용을 창출할 뿐 아니라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리스크로 인한 경기부진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

○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한 가계소득 증대가 도시화, IT 산업 발달과 맞물리면서 서비스산업이 크게 성장

□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비스업이 크게 부진한 와중에도 온라인 서비스 부문은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디지털 경제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종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금년 1~2월중 소매판매가 급감(-20.5%)하였으나 온라인 판매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높은 신장세*를 지속

* 1~2월중 온라인 식품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9년 30.9 → '20.1~2월 26.4

○ 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5G,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원격진료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

=> 향후 중국경제를 견인해나갈 서비스산업의 성장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

Ⅱ 중국 서비스산업 현황

□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성장과 고용의 두 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성장 : GDP내 비중 및 기여도 증가)

□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의 GDP 비중이 2012년을 기점으로 제조업 중심의 2차산업을 추월한 이후 양자 간 격차가 더욱 확대

○ 3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이후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성장기여율도 60%에 근접('19년 59.4%)

▪ 도시화*와 함께 서비스업이 높은 신장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을 견인

* 주요 도시 서비스산업 비중(%): 베이징(83.5), 상하이(72.7), 텐진(63.5), 충칭(53.2)

** 서비스산업 명목 GDP 증가율(%): 12.6('15년) → 12.2('17년) → 9.1('19년)

산업별 GDP 비중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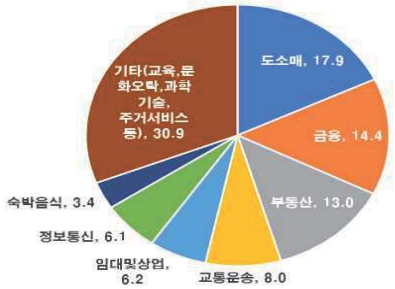
서비스업 명목GDP 추이 및 성장률

자료: CEIC

○ 업종별 비중('19년 기준)은 도소매업 17.9%, 금융업 14.4%, 부동산업 13.0%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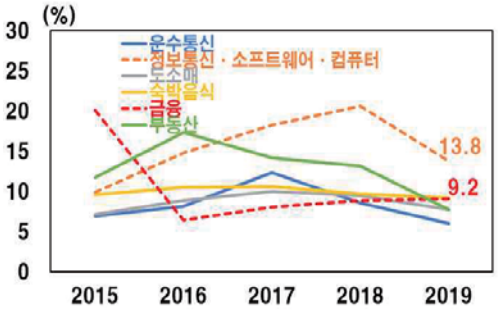
▪ 특히 정보통신·소프트웨어·컴퓨터, 금융 등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서비스업종이 두드러진 성장세

서비스업 업종별 비중



자료: 2019년 기준, CEIC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률



자료: CEIC

(고용 : 유휴 노동력 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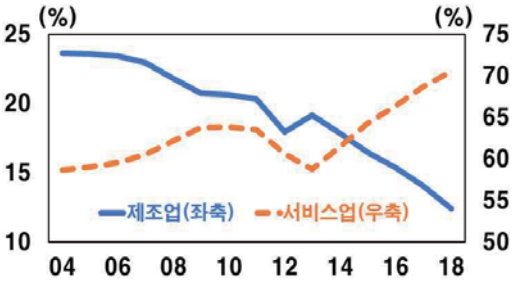
□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주로 도시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도시지역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

○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중에도 도시지역 서비스업 고용이 4.6% 늘어나며 제조업 고용감소(-9.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13~'18년 연평균 8.0% 증가)

○ 도시지역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체 도시 고용의 70.5%를 차지('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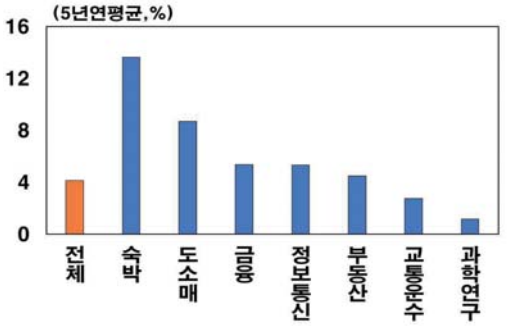
▪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44.9%), 임대·상업서비스(11.8%) 및 음식숙박(10.2%) 순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숙박(13.7%), 도소매(8.7%) 등 주로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꾸준히 증가

업종별 종사자수 비중



자료: 도시지역 기준, CEIC

서비스산업 세부업종별 종사자수 증가율



자료: 도시지역 기준, CEIC

Ⅲ 서비스산업의 성장 배경 및 주요 특징

1. 성장 배경

◆ 중국 서비스산업의 성장 배경

① **소득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소비 성향이 높은 30~40대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요가 확대

②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③ **서비스업 성장촉진 정책:** 서비스업 성장에 중점을 둔 질적성장 구조로의 정책전환 추진

(소득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

□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이 지난 5년간 연평균 8.0% 상승*하면서 서비스업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

* 최근 5년간('12~'17년, OECD기준) 중국의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6.6%로 주요국(미국: 2.8%, 일본: -4.2%)이나 여타 국가(중하위소득 국가, 1.5%)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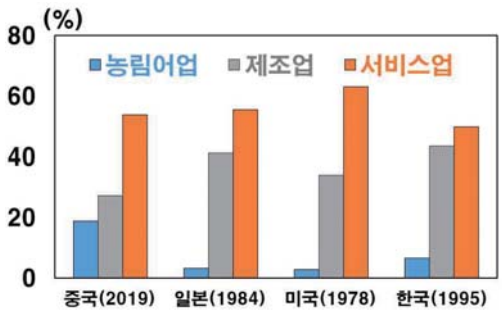
○ 주요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제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 2019년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7.1만위안)를 넘어섰으며, 도시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도 6,410달러(4.2만위안)를 기록

중국 1인당 가처분소득

자료: 도시가계 기준, CEIC

1인당 GNP 1만달러 국가별 산업구조



자료: IMF, CEIC,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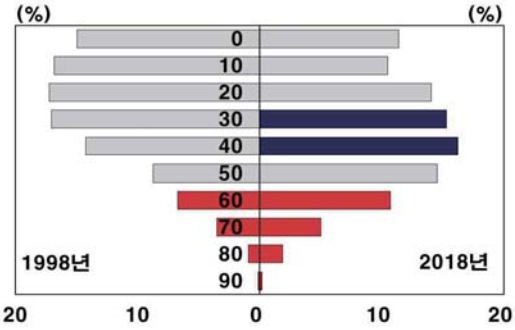
□ 연령별 인구분포에서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인구가 가장 큰 비중('18년 기준 31.5%)을 차지하면서 서비스 수요를 견인*

* 2017년 대비 2018년 소비증가액의 60%가 청년층에서 발생(Mckinsey, 2019)

○ 30~40대가 해외여행, 문화 및 오락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주도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며('08년 14.0% → '18년 17.9%) 헬스케어 등 의료관련 서비스 수요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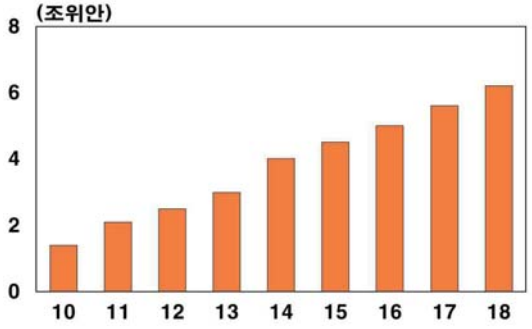
▪ 교육·문화·오락 및 의료·보건에 대한 지출이 지난 5년간 연평균 9.2% 및 11.8% 늘어나며 의·식·주 증가율(6.2%)을 상회

중국연령별 인구분포



자료: CEIC

실버산업 규모



자료: 前瞻産業研究院

(대외개방 확대)

□ 중국정부는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마련(11년개정, 12.1월 실시)하는 한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외자진입제한을 완화('17.8월)

○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여 교통운송, 정보통신, 문화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

* 정부가 명시한 외국인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조치('17.6월)

▪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61.7%로 제조업 비중(29.8%)을 큰 폭 상회

▪ 과학연구, 교육,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관련 외자기업이 큰 폭 증가

외국인 투자 비중

자료: CEIC

주요 업종별 외자기업 수 증가율

자료: CEIC

(서비스업 성장촉진 정책)

□ 중국정부는 서비스업 성장에 중점을 둔 질적성장 구조로의 정책전환을 추진

○ 「2011년 12·5 계획」에서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방침을 제시하고 「서비스업 발전 12.5계획」을 마련

▪ 서비스업을 성격에 따라 크게 생산성*, 생활성**, 농촌, 해양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서비스업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

* 금융업, 교통운수, 물류, 설계컨설팅, 과학기술, 비즈니스 등 12가지 서비스 업종을 제조업과 연계

** 문화산업, 여행업, 헬스, 법률, 양로, 부동산 등 9가지 서비스 업종을 소비창출과 연계

○ 2017년에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대적 서비스업의 발전 가속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9년에는 베이징시 정부가 「야간경제* 관련 서비스업 육성계획」을 수립

* 오후 6시~다음날 새벽 6시 사이 쇼핑, 요식, 관광, 레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비활동

< 참고 1>

2017년 이후 중국의 주요 서비스업 정책

□ 2017년 이후 내수시장 확대 및 서비스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연도	정책과제	내용
2017	공급측 개혁	신성장동력 산업 구축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제 경제 융합 가속화 등)
		전통산업 특화 제고, 현대적 서비스업[1] 가속화, 고품질 달성
	전면적 개방 신구도 형성	서비스 개방 확대
		글로벌 무역·투융자·생산·서비스 네트워크 형성
2018	공급측 개혁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에서 인터넷플러스 추진
	혁신 강화	전방위적 혁신 창업 서비스, 플랫폼경제·공유경제 육성
	소비확대	소비기반 양성(세컨드카, 의료·양로·교육·문화·여행 등)
	개방확대	수출신용보험, 통관 단축, 서비스무역 개선, 신 무역업태
2019	내수시장 확대	개인소득세 개혁 등을 통해 구매력 향상
		5G 상용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
	경제시스템 개혁	금융인프라 개혁 등을 통한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주: 1) 첨단기술 기반, 전문화, 고부가가치화된 서비스업을 통칭
자료: 코트라(2018), 중앙경제공작회의

□ 한편 최근 베이징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공함에 따라 여타 대도시로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확대 추진

○ 하루 소비 중 60%가 야간에 발생하며 야간경제 시장규모가 지속 성장 (18.3조위안(2016)→22.9조위안(2018))

지역별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

지역	내용
베이징	베이징 식물원의 야간개장 개시로 관광객 30% 이상 증가
	24시 서점, 라이브카페, 길거리 화가, 박물관이 살아있다 등 조성
광저우	2022년까지 야간경제 발전을 위한 목표달성
	「광저우의 밤」 브랜드 구축
지난, 상하이	야간 구청장, 야간 생활 수석 집행관 제도 도입
중앙정부	주요 상권 영업시간 연장
	심야영업 전문지역·심야식당 등 특색 있는 먹거리 지역 조성 지원
	야간 교통·안전·환경 등 부대시설 완비

자료: CSF 중국소비자포럼

2. 주요 특징

◆ **중국 서비스산업의 주요 특징**

① **디지털화 가속:** 전자상거래 수단의 보편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고속 성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업의 디지털화가 가속

② **업종별 생산성 격차 확대:** 생산성이 낮은 업종(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과 높은 업종(금융업,정보통신업 등) 간 노동생산성 차이가 주요 신흥국에 비해 크게 확대

③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여행, 운송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

(디지털화 가속)

□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사용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서비스거래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

○ 중국정부가 핀테크 기업 중심의 모바일 결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결과 서비스거래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사용인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

* 전체 소매판매 중 온라인 거래 금액이 30.8%에 이르고 이 가운데 83.0%가 Alipay, Wechat Pay 등 모바일 결제를 사용

(억 명)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일본	영국	한국
▶ 주요국 인터넷 이용인구 수[1)]	8.0	4.8	2.7	1.4	1.2	0.65	0.48
▶ 주요국 스마트기기 사용자 수[2)]	8.5	3.5	2.6	0.97	0.73	0.56	0.36

주: 1) 2018년 기준 2) 2019.9월 기준
자료: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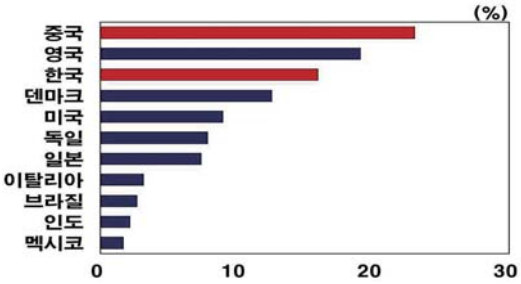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서비스업 거래통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크게 확장

○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 비중(23.1%)은 세계 1위로 영국(19.1%), 한국(16.0%) 및 미국(9.0%) 등 주요 국가를 상회('17년 기준)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필품 위주의 온라인 구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량이 큰 폭 증가*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중 하나인 징동(京東)의 육류, 계란 등 식자재의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400% 이상 증가('20.2월, 中國新聞网)

주요국 온라인 소매판매 비중[1)]



주: 1) 2017년 기준
자료: Statista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자료: 중국상무부, Statista

□ 특히 그동안 넓은 국토로 인한 물리적·지리적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교육, 의료 관련 양질의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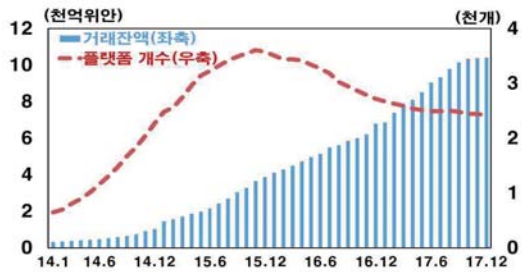
○ **(의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기업이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하며 도·농간 의료 불평등, 낮은 의료 접근성* 등을 해소하는 스마트 의료가 부상

* 2017년 기준 1천명당 의사 수가 2.01명으로 OECD 평균(3.3명) 대비 부족

○ **(교육, 여행)** 온라인 이러닝 이용자 수(2.2억명, '19.6월 기준)가 크게 늘어나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도 연평균(2013~2018년) 37.8%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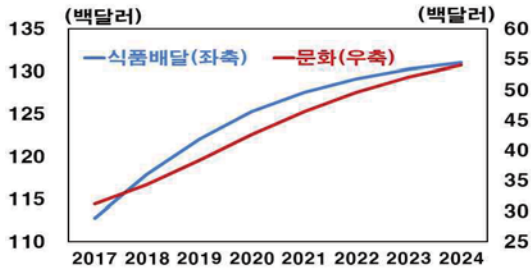
○ **(금융)** 2013년 온라인을 통한 펀드판매 개시 이후 P2P방식의 온라인 대출이 급성장('14년 1,030억위안 → '17년 1.04조위안)

P2P 온라인대출 거래규모



자료: CEIC

온라인 서비스업 수익 전망추이[1)]



주: 1) 온라인 사용자 1명당 수익
자료: Stati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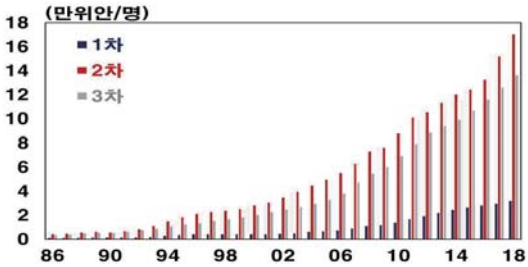
(업종별 생산성 격차 확대)

□ 서비스산업에서 생산성이 낮은 업종과 생산성이 높은 업종간 노동생산성 차이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최근 3년('15~'18) 중국의 서비스업종간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차이(생산성 높은 업종 - 생산성 낮은 업종)는 12.8%로 주요 신흥국(러시아 1.8%, 태국 0.5%, 말레이시아 0.3%)보다 높은 수준임

○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부가가치/취업자수)이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데 이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종사자가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

산업별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CEIC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자료: CEIC

서비스업 부가가치 및 부문별 종사자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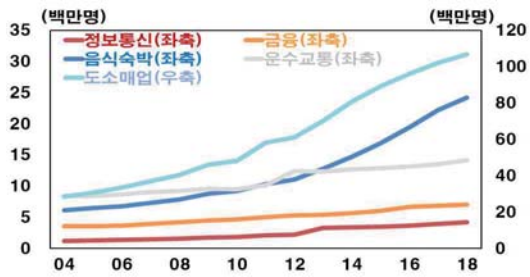
(단위: %)

저부가가치 업종				고부가가치 업종
도소매(전체: 8.7)		음식숙박(전체: 13.7)		정보통신
국유부문	민간부문	국유부문	민간부문	국유부문
-1.6	9.9	-2.4	17.2	5.3

주: 5년(2013~2018년) 연평균, 도시지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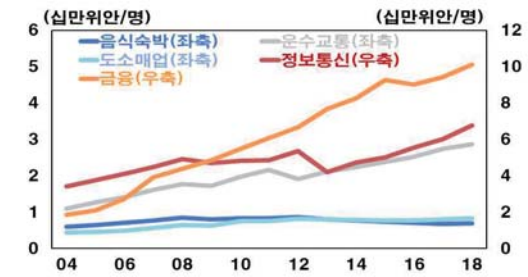
○ 한편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생산성은 꾸준히 향상

서비스업 업종별 종사자수 추이



자료: 도시기준, CEIC

중국 서비스업 업종별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CEIC

□ 향후 서비스업 생산성은 고부가가치 4차 산업*과 저부가가치 업종(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의 스마트 연계, 고부가가치 업종의 지속 성장 여부 등에 좌우될 전망

*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전통인프라, 5G 등을 포함한 新인프라 투자를 강조('20.3월)

○ 이에 중국정부는 통신, 금융 등 기간산업의 민간부문 개방*을 확대할 방침

* 이미 5개 민영은행을 설립허가했으며('14.3월), 2020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100%지분을 갖는 금융회사 설립을 허용. 중앙위원회는 통신 등 기간산업을 민간부문에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19.12월)

<참고 2>

2020년 중앙정치국 회의 주요 내용

□ 올해 중국정부는 기존 전통인프라 투자에 더해 4차산업과 연계된 新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20.3.4.)

○ 新인프라 투자는 5G, AI, 산업인터넷, 스마트시티, 스마트교육, 스마트의료 등에 집중될 예정

인프라투자 구분

전통인프라	新인프라
고속도로, 고속철도, 의료시설, 양로시설 등	5G, AI, 산업인터넷, 스마트시티/교육/의료 등

□ 지방정부 중에서는 광둥성 정부가 처음으로 5G 등을 위한 투자 예산 편성(3.5)

○ 올해 총 7,0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 중 5G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을 위해 172억 위안의 예산*을 마련

* 전년도 투자액인 30억위안 대비 약 6배 수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 중국은 서비스무역 개방 이후 여행, 운송*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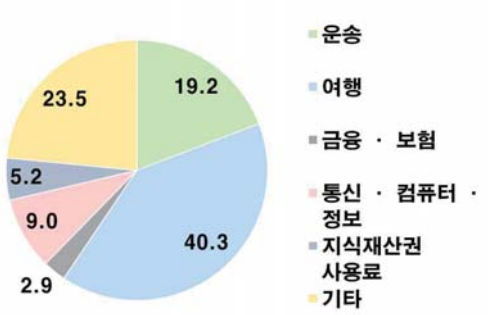
* 중국 전체 서비스교역(수출+수입)중 여행, 운송산업의 비중은 각각 40.3% 및 19.2%

○ 글로벌 서비스 수입 비중(중국의 서비스 수입금액/전세계 서비스 수입금액)은 9.5%로 EU(17.1%), 미국(10.2%)에 이어 3위('18년 기준)

서비스 교역 추이

자료: 중국상무부

서비스교역 업종별 비중



자료: 중국상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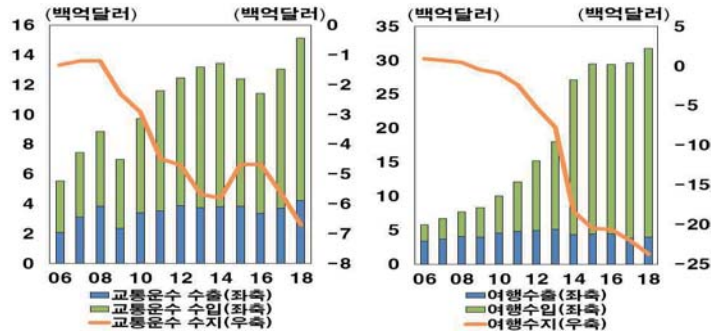
○ 가계소득 증가로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광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

* 1,047.2만명('00) → 4,584.4만명('08) → 1.62억명('18)

중국 서비스수지 추이

자료: IMF

중국 서비스수지 주요업종별 추이



자료: IMF

Ⅲ 평가 및 전망

□ 중국의 가계소득 여건 개선, 인구분포의 다양성, 정부정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서비스산업 비중은 여타 주요국들에 대비 현저히 낮아 가계소득이 향상되면서 세대별로 양질의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

* 젊은층은 해외여행, 문화·오락, 온라인 기반 소비(쇼핑, 게임, 교육, 플랫폼 서비스 등), 노년층은 의료 및 요양 등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확대

▪ 서비스산업의 대내외 개방 확대로 새로운 내수시장이 창출되면서 서비스 공급도 증가

▶ 주요국 서비스산업 비중[1] (%)

중국	미국[2]	일본[2]	유로	독일	영국	한국
52.2	77.4	69.1	66.0	61.8	71.0	53.6

주: 1) 2018년 기준 2) 미국 및 일본은 2017년 기준
자료: World Bank

□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전반이 크게 부진한 와중에 온라인에 기반한 업종은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는 등 서비스업의 디지털 경제화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대응 방안으로 4차 산업과 연계된 新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방침

▪ 이에 전자상거래, 스마트시티·의료·교육, 원격근무 서비스 등과 같은 업종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

▪ 한편, 기존 저부가치 업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송 등)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5G, AI,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등과 연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

김성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6.12월

김영한, “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내용과 시사점”, 2016.7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공급측 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2018.12월

_____,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2015.1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 동향과 진출 방안”, 2018.3월

산업연구원,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추이와 시사점“, 2020.1월

_____, “외상투자지도목록으로 살펴본 중국의 외국기업정책“, 2017.9월

신금미, “중국 야간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CSF 중국전문가포럼, 2019.12월

연합인포맥스, “中, 5G 등 신규 인프라 투자 늘릴 것”, 2020.3월

_____, “광둥, 新 인프라 투자 시작 알려...7천억 위안 투자할 것”, 2020.3월

전익호,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 2015.11월

한국무역협회, “중국의 15개 소비 트렌드를 주목하라”, 2015.4월

_____,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및 시사점”, 2020.2월

IMF, “China’s Productivity Convergence and Growth Potential“, *IMF Working Paper,* 2019.12월

Mckinsey&Company, “China Consumer Report 2020”, 2019.12월

光明日報, 《我國服務業占比快速增長的原因》, 2017.5월

國家統計局, 《服務業在新時代改革開放中邁向高質量發展》, 2020.1월

_____, 《服務業發展提質增效》, 2020.1월

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 《2019年軟件和信息技術服務業統計公報》, 2020.2월

中國日報网, 《2019年中國GDP數据公布 , 如何正确看待服務業占比？》, 2020.1월

中國電子信息産業發展研究院, 《2019年中國數字經濟發展指數》, 2019.10월

海峽兩岸關係法學研究會, 《簡崙台灣政黨政治發展及其趨勢》, 2010.6월

주요 신규 경제지표(3.25 ~ 3.31)

【미 국】

□ 2월 비방위자본재 수주 감소 전환(3.25일)

○ 1월 1.0% → 2월 -0.8%

(항공기제외, 전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비방위자본재 수주	6.1	0.7	-0.3	0.0	0.1	-0.8	1.0	-0.8

자료: 미국 인구통계국

□ 2019.4/4분기 실질 GDP성장률(확정치) 전분기 수준 유지(3.26일)

○ 2019.3/4분기 2.1% → 4/4분기 2.1%

(전기대비 연율, %)

	2018			2019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실질 GDP성장률	2.9	2.9	1.1	2.3	3.1	2.0	2.1	2.1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

□ 2월 실질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전월 수준 유지(3.27일)

○ 1월 0.1% → 2월 0.1%

(전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실질 개인소비지출	3.0	2.6	1.1	0.8	0.5	0.1	0.1	0.1

자료: 미국 경제분석국

□ 3월 소비자신뢰지수(미시건대, 확정치) 하락(3.27일)

○ 2월 101.0 → 3월 89.1

(1966=100)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소비자신뢰지수	98.4	96.0	93.8	97.2	96.4	99.8	101.0	89.1

자료: University of Michigan

□ 3월 소비자신뢰지수(Conference Board) 하락(3.31일)

○ 2월 132.6 → 3월 120.0

(1985=100)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소비자신뢰지수	130.1	128.3	132.1	127.0	127.7	130.4	132.6	120.0

자료: Conference Board

【유 로】

□ 3월 경기체감지수 하락(3.30일)

○ 2월 103.4 → 3월 94.5

(기준=100)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경기체감지수	111.5	103.1	102	100.6	100.2	102.6	103.4	94.5

자료: EU집행위

□ 3월 소비자신뢰지수(확정치) 하락(3.30일)

○ 2월 -6.6 → 3월 -11.6

(기준=0)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소비자신뢰지수	-4.9	-7.1	-6.8	-7.6	-8.8	-8.1	-6.6	-11.6

자료: EU집행위

□ 3월 소비자물가(속보치) 오름세 둔화(3.31일)

○ 2월 1.2% → 3월 0.7%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1.8	1.2	1.0	1.0	1.1	1.4	1.2	0.7

자료: EU통계청

【일 본】

□ 2월 실업률 2.4% 기록(3.31일)

○ 2020.1월 2.4% → 2월 2.4%

(전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실업률	2.4	2.4	2.4	2.3	2.3	2.2	2.4	2.4

자료: 일본 총무성

□ 2월 소매판매 증가율 하락(3.31일)

○ 2020.1월 1.5% → 2월 0.6%

(전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소매판매	1.7	0.1	0.4	3.3	-6.4	0.3	1.5	0.6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 2월 산업생산 증가율 하락(3.31일)

○ 2020.1월 1.0% → 2월 0.4%

(전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산업생산	1.1	-2.9	0.6	-0.5	-4.1	1.2	1.0	0.4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중 국】

□ 3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큰 폭 상승(3.31일)

○ 2월 35.7 → 3월 52.0

(기준치 = 50)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제조업 PMI	50.9	49.7	49.7	49.9	45.9	50.0	35.7	52.0

주: 분기 및 연간수치는 해당기간 단순평균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주요 신흥국】

□ **(말레이시아)**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폭 하락(3.25일)

○ 2020.1월 1.6% → 2월 1.3%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2/4	3/4	4/4	12월	1월	2월
소비자물가	1.0	0.7	0.6	1.3	1.0	1.0	1.6	1.3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 **(베트남)** 1분기 GDP성장률 큰 폭 하락(3.27일)

○ 2019.4/4분기 7.0% → 2020.1/4분기 3.8%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1/4
GDP	7.1	7.3	7.0	6.8	6.7	7.5	7.0	3.8

자료: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세 지속(3.27일)

○ 2020.2월 5.4% → 3월 4.9%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3.5	2.8	2.2	3.7	5.6	6.4	5.4	4.9

자료: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3월 소매판매 감소 전환(3.27일)

○ 2020.2월 4.0% → 3월 - 0.3%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소매판매	11.5	12.2	12.0	11.3	5.2	11.6	4.0	-0.3

자료: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3월 수출 감소(3.27일)

○ 2020.2월 50.3% → 3월 -12.1%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2020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수출	13.3	8.4	10.7	8.5	0.6	-17.4	50.3	-12.1

자료: 베트남 통계청

주간 발표 예정 해외경제지표 및 시장전망

▶ 미 국

(전년동월대비, %)

발표일	지 표	발표기관	전망치[1]	전기치
4. 9	·3월 생산자물가	노동통계국	··	1.3
10	·3월 소비자물가	노동통계국	··	2.3

주 : 1) Bloomberg

▶ 유 럽

(전기대비, %)

	발표일	지 표	발표기관	전망치	전기치
독일	4. 7	·2월 산업생산	독일연방은행	-	2.7
	9	·2월 무역수지(억유로)	독일통계청	-	190
프랑스	4. 7	·2월 산업생산	프랑스통계청	-	1.2
		·2월 무역수지(억유로)	프랑스경제부	-	-74

▶ 일 본

(전기대비, %, 십억엔)

발표일	지 표	발표기관	전망치	전기치
4. 7	·2월 소비활동지수	일본은행	··	0.5
8	·2월 경상수지	일본은행	··	612
	·2월 민간기계수주액	내각부	··	2.9

▶ 중 국

(전년동기대비, %)

발표일	지 표	발표기관	전망치[1]	전기치
4. 10~15	·3월 광의통화(M2)	인민은행	8.5	8.8
10	·3월 소비자물가	국가통계국	4.9	5.2
10	·3월 생산자물가	〃	-1.1	-0.4

주: 1) Bloomberg

최신 해외학술 정보

※ 본 정보는 경제연구원의「최신 해외학술 정보」중 일부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전문을 보기 원하실 경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imer.bok.or.kr)내 자료실(기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연구원

① "What's the Fed Doing i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What More Could It Do?"

출처: *Brookings Institution - The Hutchins Center on Fiscal and Monetary Policy*

저자: Jeffrey Cheng(Hutchins Center), Dave Skidmore(Brookings Institution), David Wessel(Hutchins Center)

【핵심내용】

○ 본고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대유행(pandemic)에 대응하기 위해 미 연준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정리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도입가능한 조치를 제안

○ 지금까지 연준은 정책금리를 0~0.25%로 150bp 인하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시행중임

- 금융시장 기능(functioning) 유지 : 양적완화를 통해 국채 및 Agency MBS를 무제한 매입하는 한편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및 MMLF(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를 통해 프라이머리 딜러와 MMMF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

- 은행대출 지원 : 재할인 금리(discount window)를 1.75%에서 0.25%로 인하(primary credit 기준)하고 만기도 1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가운데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완화

- 기업활동 지원 : PMCCF(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및 SMCCF(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를 새로이 마련하여 신용도 높은 기업(highly-rated U.S. corporations)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매입(한도는 각 1,000억달러)

- 가계 지원 : TALF(term ABS Loan Facility)를 통해 가계, 소비자, 소규모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를 매입(한도는 1,000억달러)

- 지방정부 재정 지원 : 신용등급이 높은 지방정부채 및 지방정부채권 담보 기업어음 등을 MMLF와 CPFF(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의 적격담보로 인정

- 중앙은행 간 스왑 확대 : 호주, 브라질, 덴마크,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중앙은행과의 스왑라인을 신규로 구축

○ 앞으로 미 연준이 필요 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① 기도입된 대출제도의 한도 대폭 증액, ② 낙인효과 없이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TAF(Term Auction Facility) 재가동, ③ 은행의 대출공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대출제도(예: 영란은행 Funding for Lending Scheme) 도입, ④ PDCF 거래상대방에 헤지펀드 등 비은행 추가, 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지속 기간에 대한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 강화 등이 있을 수 있음

【분석방법론】 Literature Survey

② "Automatic Stabilizers in a Low-Rate Environment"

출처: *PIIE, Policy Brief 20-2*

저자: Olivier Blanchard(PIIE), Lawrence H. Summers(Harvard大)

【핵심내용】

○ 거시경제 안정화(macroeconomic stabilization)는 주로 통화정책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저금리 하에서 통화정책 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짐

- 과거 경기침체 발생 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실업률 최대치가 증가(1.3~1.7%p)하고 침체가 장기화(14~21분기 연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상응하는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

○ 본고에서는 재정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으로 반자동 안정화장치(semiautomatic stabilizers)를 제시하고 효율적 시행방안을 검토

- 반자동 안정화장치는 성장률,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특정 수치(threshold)에 도달할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자동 안정화장치나 재량적 재정정책과 구분

- 반자동 안정화장치의 예로는 일시적인 소득세 환급, 내구재 구입 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감세 등이 있음

○ 반자동 안정화장치 도입 시 시행기준(trigger)으로는 산출(output)보다 실업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구조적 VAR모형을 통해 실업률 및 산출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시적 요인에 의한 변동비율은 실업률(53~81%)에 비해 산출(11~25%)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 이는 안정화장치 시행이 산출에 근거할 경우 영구적 충격에 따른 잠재산출량 변동에도 반응할 가능성이 커 거시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

○ 반자동 안정화장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재량적 재정정책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재량적 재정정책이 시행될 경우, 반자동 안정화장치는 단기간의 세액공제 등을 통해 기간 간 대체효과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

- 반면 재량적 재정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반자동 안정화장치는 유일한 대응 수단으로서 민간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경우 경기침체 지속기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 기간을 장기화하거나 종료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기 부양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분석방법론】 Counterfactual Experiments, Structural VAR Model

③ "Growth-and-Risk Trade-off"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NO.14492*

저자: Maria Dolores Gadea Rivas(Zaragoza大), Luc Laeven(ECB), Gabriel Pérez - Quirós(ECB)

【핵심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축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신용축적이 경기침체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진행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신용축적이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경기확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경기침체 정도별, 신용축적 규모별로 이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

- 국가별 GDP 대비 신용 비율(credit-to-GDP ratio), GDP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경기변동을 침체기와 확장기로 구분*하고, 분위회귀 모형 등을 활용하여 신용규모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Harding and Pagan(2002)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경기침체기, 확장기를 구분하였으며 경기변동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지속기간(duration), 진폭(amplitude) 및 누적도(cumulation)를 설정

○ 침체기의 경우 신용축적 정도*가 증가할수록 경기침체의 정도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기침체 정도가 가장 심한 경우 동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침체기(t)의 GDP 대비 신용 비율에서 2년 전(t-9)의 해당 비율을 차감한 정도로 측정

- 분위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신용축적 규모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특정 수준을 기점으로 해당 효과가 증폭

○ 확장기의 경우 신용축적 규모는 일정 수준까지 경기확장이 지속되는 기간을 증가시키는데 기여

- 신용규모별 표본을 나누어 비례위험모형(Cox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한 결과, 3사분위까지는 신용 증가가 경기확장기를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음

- 또한, 가계와 기업 신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위와 같은 효과는 가계 신용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신용축적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 및 실물부문의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

-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신용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경우, 장기간의 호황기를 유지하며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분석방법론】 Quantile Regression, Cox Regression

④ "Contagion of Fear"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859*

저자: Kris James Mitchener(Santa Clara大), Gary Richardson(California大, Irvine)

【핵심내용】

○ 은행부문의 취약성이 실물경기 침체를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당시 은행위기(bank panic)의 전염효과가 나타나는 경로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본 연구는 대공황 당시 지리정보가 담긴(geo-coded)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위기*가 두 가지 경로(①대출 축소, ②통화 긴축)를 통해 실물경제로 전염됨을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

* 지리적·시간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반경 10마일 이내의 인접한 은행들이 30일 이내에 함께 예금 인출에 대한 지급정지(suspension)를 한 경우 은행위기의 집적(clustering)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

○ 추정결과, 은행위기 발생으로 예금주들의 안전자산 선호성향(flight to quality)이 강화되고 대규모 예금인출(heavy withdrawal)이 증가하며, 이에 은행들은 대차대조표의 자산구성에서 대출과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지급준비금(reserves)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

* 은행공황으로 인해 대출 규모는 약 64억 달러 감소하였으며 이는 대공황 기간 중 총 대출감소분의 약 41%에 해당

- 특히 은행부문으로의 예금 유입 시 대출 증가분보다 예금 유출시 대출 감소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의 반복적 발생은 은행의 자산구성에서 유동자산(현금, 지급준비금)의 비중을 늘리고 대출 비중을 점차 줄이게 됨

○ 한편 대공황 중 통화량은 약 115억 달러 감소(36%)하고 통화승수의 감소분(2.53)의 대부분(91.5%)이 은행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통화가설*(Friedman and Schwartz, 1963)을 지지

*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통화량이 급감하고 대공황이 유발되었다는 가설

- 전염효과가 없었다면 대공황 당시 통화량 감소규모는 약 3~4%에 불과하여 1920년대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며, 국지적 은행위기의 광범한 전염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

○ 본 연구는 대공황 당시 유동성선호 충격(liquidity preference shock)에 의해 국지적 은행위기 충격이 실물경제로 전염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경기침체 시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Model

⑤ "Do FDI Firms Employ More Workers than Domestic Firms for Each Dollar of Assets?"

출처: *IMF, Working Paper No. 20/56*

저자: Sakai Ando(IMF), Mengxue Wang(Columbia大)

【핵심내용】

○ 해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계 51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FDI)기업*과 국내 기업의 고용효과**를 비교분석

* 의결권을 가진 외국인 주주비율 10%이상인 기업

** 자산총계 1$당 피고용자 수로 측정

- 한편 영국의 산업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에 따른 피고용자 수의 영향을 통제

○ 비교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직접투자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의 자산 1$당 피고용자 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피고용인 수가 50명 이상인 기업, 100명 이상인 기업 등 기업의 규모가 달라지거나, 해외직접투자의 기준을 외국인 주주비율 10%에서 50%로 강화하더라도 결과는 유사

- 영국의 경우, 11개 산업 중 9개 산업에서 국내 기업의 1$당 피고용자 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1~2016년중 소유구조가 변경된 기업(해외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 또는 국내기업에서 해외투자기업으로 변경된 기업)과 소유구조가 유지된 기업(계속 해외투자기업, 또는 계속 국내기업)을 구분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비교한 결과, 자산 1$당 피고용자 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이는 피고용자 수의 차이가 기업소유구조 자체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의미

-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높은 생산기술을 보유하여 피고용자 수가 적고, 이로 인해 기업 간 자산 1$당 피고용자 수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이는 기업의 고용행태 변화를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구조 개입 정책은 효과가 높지 않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⑥ "The Risk of Caution : Evidence from an R&D Experiment"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6847*

저자: Richard Carson, Joshua Zivin(UC San Diego), Jordan Louviere(The Institute for Choice), Sally Sadoff(Rady School of Management), Jeffrey Shrader Jr(Columbia 大)

【핵심내용】

○ MBA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R&D 투자 담당자의 위험회피성향이 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임

* UC San Diego MBA과정 학생(191명)은 리스크 평가에 관한 정규교육을 받거나, 과학기술·금융 분야에서 5년간 실무 경험을 가진 그룹으로 민간의 R&D 투자행태 실험에 적합

○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 참가자에게 가상의 투자 프로젝트* 4개를 제시하여 투자하고 싶은 순서대로 나열하도록 하고, 이를 10차례 반복하여 합산한 성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보수를 차등 지급

* 전문가(7명)에게 평가(1~5점)를 받은 가상 투자 프로젝트는 성과가 평가점수 평균과 분산을 갖는 정규분포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되며, 참가자에게 프로젝트마다 전문가 평가점수와 평균 평가점수를 설명함

- 보수구조는 모든 참가자에게 기본보상금 $15를 지급하며, 추가적으로 상위 25%에게는 $25, 상위 10%에게는 $100를 지급하여 상방 포텐셜은 크지만, 하방 리스크는 없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균 평가점수가 같다면 분산이 큰 프로젝트를 택하는 것이 확률적 우위(stochastic dominance)

-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과 모두 같으나, 전문가 평가점수의 분산을 명시적으로 설명함(이는 사전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정보는 아님)

○ 분석 결과, 보수구조 설계 의도와는 반대로 실험 참가자는 전문가 평가점수 분산이 클수록 해당 프로젝트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첫 번째 실험에서 분산이 작은 프로젝트를 선택할 확률은 36%인 반면, 분산이 큰 프로젝트를 선택할 확률은 31%로 5%p 낮음(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 차이가 오히려 9%p로 커짐)

○ 참가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나누어보면 첫 번째 실험에서의 위험 선호자는 프로젝트의 위험에 무차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기피도가 클수록 분산이 작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일관된 경향이 존재

- 그 결과,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를 택한 상위 25%의 참가자는 하위 25%보다 보상을 3배 이상 많이 받음

○ 기업이 생산성 향상 및 수익 제고를 위한 혁신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추구성향을 가진 R&D 투자책임자의 선정이 중요함을 확인

- 최근 제약·반도체 산업에서 R&D 투자가 증가함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Krieger et al, 2019, Bloom et al, 2017)

- 인센티브가 투자자의 위험 추구를 유도하는 효과는 충분하지 않았던 반면, 투자자의 위험 추구성향과 투자 프로젝트의 리스크는 뚜렷한 상관을 나타냄

【분석방법론】 Discrete Choice Experiment, Generalized Multinomial Logit Model

⑦ "What Will Be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in the US? Rough Estimates of Disease Scenarios"

출처: *FRB of Minneapolis, Staff Report No. 595*
저자: Andrew G. Atkeson(UCLA 大)

【핵심내용】

○ 본고는 SIR 모형*을 이용하여 미국에서의 COVID-19(coronavirus disease 2019) 확산 시나리오를 분석

* COVID-19 감염 위험 노출자(susceptible to the disease : S)·감염자(infected with the disaese : I)·회복자 및 사망자(recovered or dead : R)로 나누어 각 그룹 간의 전이율(transition rate)을 고려한 마코프 모형을 이용하여 COVID-19의 확산 과정을 시뮬레이션 분석

- COVID-19 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등의 대응 조치를 통해 확진자 증가 추세를 얼마나 둔화시킬 수 있는지 분석

○ SIR 모형을 이용하여 ①감염률 감소 효과 ②고강도 대응 조치의 효과 ③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의 영향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

- 분석 결과 미국의 감염률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18개월 이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 이하로 감소

- 또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을 통해 감염률 억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경우, 확진자 증가 추세가 조기에 꺾일 것으로 예측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경제 회복 등을 위해 완화될 경우 COVID-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편, 감염률 억제에 실패하여 확진자 비율이 인구의 1%를 상회할 경우 의료체계가 정상작동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확진자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안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중요

- 확진자 비율이 인구의 10%를 상회할 경우 노동력 감소 문제가 심각해져 의료체계에 대한 집중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금융 인프라가 붕괴될 위험

○ 본고의 분석 결과는 COVID-19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경제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경우 COVID-19 재확산 위험이 존재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SIR Model

⑧ "The Dollar, Bank Leverage and Real Economic Activity : An Evolving Relationship"

출처: *BIS, Working Papers No. 847*

저자: Burcu Erik, Marko J. Lombardi, Dubravko Mihaljek, Hyun Song Shin(BIS)

【핵심내용】

○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로 인해 달러가치 변동이 실물경제 및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부문에서 변동성지수(Volatility Index: 이하 VIX)와 은행 레버리지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무위험 금리평형(Covered Interest Parity: 이하 CIP)이 성립하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남

○ 달러가치 변동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Puchasing Manager's Index: 이하 PMI), 글로벌 교역량 등의 실물지표와 달러 인덱스, VIX 등의 금융상황지표로 구성된 VAR 모형을 추정*

* 글로벌 제조업 PMI의 경우 31개국 제조업 PMI의 단순 평균을 사용하였고, 글로벌 교역의 경우 세계 교역량 지수(world trade volume index)를 활용하였으며, 달러 인덱스는 FRB 무역가중(trade-weighted) US 달러 인덱스를 사용

○ 분석 결과, 달러가치 변동이 글로벌 제조업 PMI 및 글로벌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크게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달리 그 이후에는 달러가치가 상승할 경우 글로벌 제조업 PMI 및 세계교역 성장률이 하락하는 경향

-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전반적인 금융상황에 대한 달러환율의 영향력이 확대된 반면, VIX의 영향력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축소

○ 본고는 달러가치 변동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위험감내 능력(risk capacity)이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달러 신용이 변동하면서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제시

- 광범위한(broad) 통화에 대해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전세계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꼬리 위험(tail-risk)이 축소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위험감내 능력이 제고됨

○ 글로벌 실물경제에 대한 달러의 영향력이 확대된 반면, VIX의 영향력은 축소된 것은 은행의 위험감내 능력 및 레버리지의 주요 결정요인이 VIX에서 달러로 변화하였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VAR

⑨ "What Do We Know about Poverty in North Korea?"

출처: *Palgrave Communications*

저자: Crespo Cuaresma, Olha Danylo(Vienna 大)

【핵심내용】

○ 본고는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북한의 야간조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북한 내 지역의 경제 수준 변화와 빈곤율을 추정

- 북한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지 않아 경제 상황 변화를 조명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으로, 조도 데이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인공위성 조도 데이터는 국가단위를 넘어 지역단위에 해당하는 세부 경제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를 파악하는데 도움

○ 본고에서 사용한 VIIRS 위성 데이터는 기존 국방위성 데이터에 비해 세밀하지만, 가공이 되지 않은 원자료이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후처리가 요구됨

- 산불, 기상환경, 오로라 등 외부 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하는 한편, 위성에 부착된 조도 센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지능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저자는 월별 조도 데이터의 중앙값*을 이용하여 북한의 지역별 GDP를 추정하고, 비슷한 사회구조를 지닌 국가들의 소득분포를 참고하여 북한의 빈곤율을 추정

* 원 야간조도 데이터의 경우 외부 변수들의 영향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는다면, 중앙값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상황보다 체계적으로 높거나 낮을 수 있음에 유의

- 인구구조, 고용상황, 교육수준, 1인당 GDP 등 국가별 특징이 유사한 국가들(루마니아, 알바니아, 베트남)의 로렌츠곡선*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역별 빈곤율을 도출

*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인구와 소득을 누적하며 누적소득이 45°선(균등 분포선)에 가까울수록 평등

○ 분석결과 12~16년 사이 북한의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율이 올라가며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나 16년 이후로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 또한 개선되는 모습

- 12~16년 북한의 전체 야간조도가 낮아질 때 지방 감소폭이 더욱 컸으며, 16년 이후 북한 전체적인 야간조도 값이 올라가면서 지역별 편차가 감소

○ 북한의 야간조도 데이터는 시의적절하고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유용한 보조지표를 제공하나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밀한 후처리 기법이 요구됨

【분석방법론】 인공위성 조도 데이터

국제경제리뷰 목록

【2018년】

수록호	제 목	작성부서/팀	작성자
제2018-1호	중국의 창업 활성화 배경과 시사점	중국경제팀	이수향
제2018-3호	최근 중국경제 부채 현황과 리스크 평가	중국경제팀	박동준 김민석
제2018-5호	국제원유시장 여건 점검 및 전망	국제종합팀	이창기 김지은
제2018-8호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 요인	아태경제팀 국제종합팀	조동애 장태윤
제2018-10호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미국유럽경제팀	김상우 노민재
제2018-11호	중국 자동차시장 현황 및 시사점	중국경제팀	이수향
제2018-13호	세계 반도체시장의 호황 배경 및 시사점	국제종합팀	이창기 차준열
제2018-15호	일본 임금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	아태경제팀	안시온 김민석
제2018-17호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	중국경제팀	김대운 정준영
제2018-19호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	미국유럽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장은종 김상우 안시온 김대운
제2018-21호	글로벌 가치사슬의 현황 및 시사점	국제종합팀	최기산 장태윤
제2018-22호	주요국 청년고용 현황 및 평가	미국유럽경제팀	장은종 박규리
제2018-24호	일본 가계의 경제구조 변화 및 시사점	아태경제팀	안시온
제2018-25호	글로벌 Big4(미국, 유로, 일본, 중국) 경제의 하반기 전망	뉴욕·프랑크푸르트· 북경·동경사무소	
제2018-26호	유로지역 재정동맹 추진 배경 및 과제	미국유럽경제팀	김상우 노민재
제2018-28호	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	중국경제팀	이수향
제2018-30호	유로지역 부동산시장의 잠재위험과 정책대응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정홍순
제2018-32호	중국경제 개혁개방 40주년, 성과와 과제	중국경제팀	김대운 정준영
제2018-33호	미국의 민간소비 현황 및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미국유럽경제팀	김상우 조광래
제2018-35호	최근 주요 선진국 투자 동향 및 리스크 요인 점검	국제종합팀	차준열 김수한
제2018-37호	베트남 경제 개혁 개방정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	아태경제팀	원지환 김민석

수록호	제 목	작성부서/팀	작성자
제2018-38호	최근 미국 원유생산·수출 현황 및 시사점	국제종합팀	최기산 김수한
제2018-40호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	미국유럽경제팀	최다희 노민재
제2018-42호	중국 소비시장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경제팀	이수향
제2018-44호	과거 사례와 비교한 최근 신흥국 금융불안의 특징	국제종합팀	박병걸 차준열
제2018-46호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특징 및 전망	중국경제팀	김대운 정준영
제2018-48호	주요 아시아 신흥국의 실물경제 및 대외건전성 점검	아태경제팀	안시온 김민석
제2018-49호	최근 미국 및 유로지역의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뉴욕·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제2018-50호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 동향과 2019년 전망	북경·동경사무소	

【2019년】

수록호	제 목	작성부서/팀	작성자
제2019-2호	미국의 노동시장 양극화 배경 및 시사점	미국유럽경제팀	김상우 조광래
제2019-4호	글로벌 긱 경제(Gig Economy) 현황 및 시사점	국제종합팀	최기산 김수한
제2019-6호	아세안 5국의 무역구조 현황 및 시사점	아태경제팀	원지환 김민석
제2019-9호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중국경제팀	김대운 박정하
제2019-11호	EU 자동차시장의 중장기 발전방향 및 시사점	미국유럽경제팀	최다희 고종석
제2019-13호	미국 기업의 고위험 부채 현황 및 평가	워싱턴주재원 미국유럽경제팀	남선우 최기산
제2019-15호	세계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	국제종합팀	박병걸 노민재
제2019-17호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아태경제팀	이병록 박진
제2019-19호	글로벌 원유 선물시장의 현황 및 유가와의 관계	국제종합팀	안시온 박상순 유민정
제2019-21호	최근 미국 잠재성장률 상승 배경	미국유럽경제팀	최기산 이서현
제2019-23호	2019년 하반기 미국 및 유로지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뉴욕·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제2019-24호	2019년 하반기 중국 및 일본지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북경·동경 사무소	
제2019-26호	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	중국경제팀	

수록호	제 목	작성부서/팀	작성자
제2019-28호	최근 일본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아태경제팀	원지환 김민우
제2019-30호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현황 및 주요 과제	동향분석팀 중국경제팀	김대운 이채현
제2019-32호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 현황과 배경 및 시사점	국제종합팀	원지환 이서현
제2019-34호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미국유럽경제팀	최다희 이굳건 고종석
제2019-36호	아세안 5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	아태경제팀	이병록 박 진
제2019-38호	중국과 대만·홍콩 간의 관계 : 동향 및 전망	중국경제팀	박정하
제2019-40호	미국·독일 장단기금리 역전 전후 실물지표 추이와 시사점	국제종합팀	임준혁 유민정
제2019-42호	미국 민간소비의 호조 배경 및 향후 여건 점검	미국유럽경제팀	안시온 박상순
제2019-44호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아태경제팀	박재현 박 진
제2019-46호	주요국 물가수준의 비교 및 평가	물가연구팀	이동렬 정준영
제2019-48호	최근 유로지역 수출 부진 배경 및 시사점	미국유럽경제팀	이굳건 고종석
제2019-49호	최근 미국 및 유로지역의 경제동향과 2020년 전망	뉴욕·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제2019-50호	최근 중국 및 일본의 경제동향과 2020년 전망	북경·동경 사무소	

【2020년】

수록호	제 목	작성부서/팀	작성자
제2020-1호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Ⅰ)	국제경제부	
제2020-2호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Ⅱ)	국제경제부	
제2020-3호	글로벌 서비스교역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국제종합팀	원지환 이서현
제2020-5호	미국의 저인플레이션 관련 최근 논의 및 시사점	뉴욕사무소	이홍직
제2020-7호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	중국경제팀	이정기
제2020-9호	주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거시재정팀 국제종합팀	박용민 김도완 이진기 임준혁
제2020-11호	금융 · 혁신 · 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결제연구팀 미국유럽경제팀	박기정 오강현 곽윤영

수록호	제 목	작성부서/팀	작성자
제2020-13호	중국 서비스산업의 성장 배경 및 주요 특징	중국경제팀	송효진 박정하